

지구환경 살리기 실천교육 추진

도교육청, 계획 마련...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모임 개최해 방향·실천방안 등 논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구환경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 지구 살리기 실천교육 추진 계획'을 마련,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모임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환경시민단체, 학생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환경교육 방향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교육 활성화 핵심 사업 토의 △찾아가는 환경교육 성과와 함께 △학부모의 지구살리기 실천 참여 △학급운영 공기질 연구 등이 있다.

이날 첫 번째 모임에서는 도교육청의 지구살리기 실천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지구살리기 실천교육 추진 계획에 따르면 4개 분야에서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0 지구 살리기 실천계획은 학교교육과정과 맞는 환경생태교육 실천을



도교육청은 25일 '2020 지구살리기 실천교육 추진 계획'을 마련,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모임을 개최했다.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적합한 계기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교과 재구성 등을 통한 학교교육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며 교과통합형 환경교육 실천사례집 발간도 추진한다.

또한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생태교육 저변 확대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사례 중심 연구, 특수분야 직무연수, 환경멘토와 함께하는 사례동행 동아리 지원 등이 있다.

'환경관련 계기교육'도 실시한다. 단

위학교 에너지절약 및 재활용 실천운동 전개, 환경의 날 자체 행사 추진,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 전개, 초·중·고 새건전지 교환사업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환경생태체험교육 확대분야'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학교생태지도 만들기, 그린스쿨, 새만금 기후변화 캠프, 아라와글 환경학교, 환경교육 홍보단 찾아가는 수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응시생 62명 간호사 면허 취득... 2009년 간호학과 설립 이후 100% 합격 달성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전원이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25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치러진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간호학과 응시생 62명 전원이 합격,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다.

김현영 교수(간호학과장)는 "국가고시 전원 합격은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제시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비학점 교육과정 등 질 높은 간호교육을 진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실무능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간호학과는 2009년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전원이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사진은 2019년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설립 이후 꾸준히 국가고시 100% 합격을 달성해오고 있으며, 간호실무,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학 종합 시뮬레이션 시스템, OSCE 및

CPX 프로그램 운영, 간호술제 등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역량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개강일 1주 추가 연기... 3월 16일 개강

중국인 유학생 없어 1주일 연기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따라 연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일을 1주 추가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5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개강연기의 직접적 사유가 되는 중국인 유학생이 없어 1주일의 개강연기를 결정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개강일의 추가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검토배경을 밝혔다. 한편 도내 대학 대부분이 2주 개강연기를 결정할 바 있다.

이로써 전주교대 개강일은 3월 16일로 변경됐으며,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보장 계획은 별도 검토 중이다.

김우영 총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주시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비상사국"이라며, "위기상황에 따른 신속대응과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감염병 재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광병선 총장,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꽃 선물 릴레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되어,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광병선 총장은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의 지명을 받아 꽃 선물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었고, 다음 참여지로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을 지명했다.

광병선 총장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꽃 선물 릴레이에 참가해 화훼농가의 어려움도 덜

어주고 따뜻한 마음도 주고받으면서,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본격 활동 돌입

62명 진학전문 교사 참여... 대입진학지도 정보·전략 지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25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8층 회의실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지호 서립고 교사를 단장으로 총 62명의 진학전문 교사가 참여하며, 자문위원(3명), 업무팀(10명)도 지원에 동참했다.

지원단은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지원팀 △수능전형 연구지원팀 △대입 진로진학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뉘 2020학년도 대입진학지도 정보 및 전략 허브 역할을 하

게 된다.

이 가운데 입시분석 및 자료개발팀은 대학별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입진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또 수시전형 합격사례 분석 자료와 면접가이드 발간·제작에도 관여한다.

또한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온·오프라인에서 대입상담을 맡게 되며, 특히 고3 대상 수시·정시 진학상담과 콜센터 대입상담교사단 운영도 담당한다.

또 대입전형 연구지원팀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지원팀, 수능전형 연구지

원팀 2개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별 집중 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대입진학 지도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대입전형 결과 및 주요대학 전형요강 분석, 수시·정시 지원전략, 단위학교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4월과 7월, 12월에 심층 전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능력있는 진학전문 교사들로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했다"며 "지원단은 사교육 진학컨설팅 수요를 해소하고 권역·학교 단위로 체계적인 진학지도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3월 15일까지 도서관 휴관

문헌복사서비스·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용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을 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관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중앙도서관과 제2도서관, 학습도서관, 의학·법학·치의학·익산특성화캠퍼스 등의 분관 도서관이다. 도서관 휴관에 따라 도서반납은 중

앙도서관과 제2도서관, 의학분관 정문에 위치한 무인반납함을 이용하면 되고, 휴관기간 중 대출자료 반납 예정일은 3월 16일로 자동 연기된다.

한편 문헌복사서비스와 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